"한국사 중심엔 불교사가 있다"

주목! 학술서 – 고영섭의 〈한국불교사 궁구〉 1 · 2권

韓불교사 3부작 중 마지막
1500쪽 걸쳐 통사적 탐구
시대별 불교 변화 등 담아
"역사 알아야 불교 바로 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궁구.(窮究)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하다' 는 의미를 가진 단어다. 17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역사학적으로 무한한 광맥을 지녔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내놓은 연구저작물 〈한국불교사 궁구〉는 1700년 한국불교사를 시대와 주제별로 분류해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는 고 교수의 전작 〈한국불교사 연구〉 〈한국불교사 탐구〉를 잇는 한국불교사 3부작의 마지막이기도 하다.

총 2권으로 이뤄진 〈한국불교사 궁구〉는 총 1500페이지라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한다. 저자는 △고대불교, 전래와 수용 및 공인과 유통 시대 △고려불교, 심화와 확장 및 내화와 외화시대 △조선불교, 자립과 자생 및 선지와 교문시대 △대한불교, 국난과 법난 및 재구와 부흥시대 등 4부로 나눠 한국불교사를 살핀다.

한국 고대불교의 전래와 수용을 조명한 1부 '고대불교, 전래와 수용 및 공인과 유통시대' 에는 8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한국 고대불교의 형성과 지형' 에서는 실크로드를 거쳐 전해진 고대불교가 어떠한 지형도를 그렸고 어떤 인물들에 의해 주도돼 왔는지를 검토했다. '가야 명칭의 어원과 가야불교의 시원' 에서는 가야의 명칭이 붓다의 오도처인 부다가야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고구려 혜관이 일본 삼론학에 미친 영향' 에서는 고구려 출신 혜관이 수나라 유학 이후 일본 삼론종 2조로서 일본 삼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구명했다.

'신라 원측이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 과 '정중무상의 무념관' , '구화 지정이 중국불교에 미친 영향' 은 신라 왕손 원측과 왕자 무상, 지장 스님이 중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영향력을 가졌는지를 조명하고 있다.

2부 '고려불교, 심화와 확장 및 내화와 외화시대' 는 고려불교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룬다. 8편의 논문 중에서는 '〈삼국유사〉 흥법편 아도기라 조의 고찰' 을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해당 논문을 통해 고구려불교 재전자인 아도와 신라불교 초전자인 아도를 구분하고 아굴마의 아들 아도가 신라불교의 초전자였음을 밝혔다.

또한 '한국 승군의 역사와 성격' 에서는 승군이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불교 특유의 것이라는 사실과 고구려 안시성 전투로 시작된 승군이 고려 · 조선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조명했다.

조선시대 전반을 조명한 3부는 자생적 불교를 보였던 조선불교의 특징을 조망한 연구 논문들이 수록됐다. '조선 후기 불학의 실학적 성격' 에서는 유교 성리학 재편과정에서 시작된 실학의 개념을 불교의 중도 실제학의 개념으로 풀어감으로서 조선 후기 실학시대에 불학이 자기 정체성을 모색했는지를 검토했다.

조선 후기 불교계 지성인들이 어떻게 역사와 시대를 바라봤고 불교사상이 개화사상과 어떻게 접목됐는지를 살핀 '조선후기 불교계의 지성인 형성기반' 도 눈길을 끈다.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격동의 시대를 다룬 4부에서는 국난과 법난을 극복하고 교단을 재건하는 일련의 과정을 조망했다.

고 교수는 "한국불교사는 한국사의 마중물"이라며 "한국불교가 시대 주류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탐구와 다른 궁구라고 해서 마지막이란 종결의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파고든다' 는 자세로 나아가겠다"면서 "앞으로도 한국불교사에 대한 나의 '궁구' 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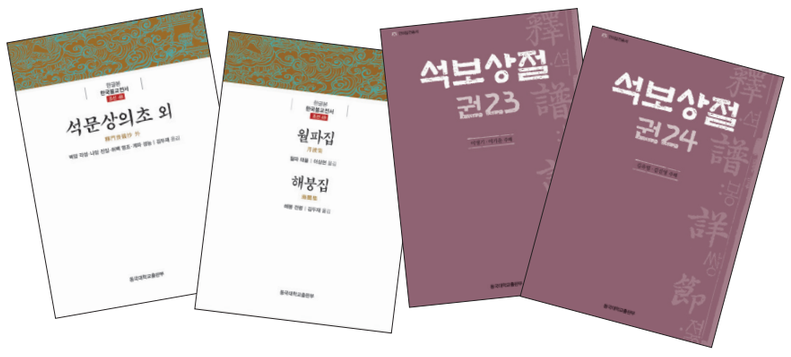
鮮末 고승 문집 · 의식집 한글본 발간 잇달아

〈월파집 · 해붕집〉 등 한글화
주해 〈석보상절〉 23, 24권도

조선 후기 고승들의 시문집과 의식집 등이 한글로 번역됐다.

동국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사업단(이하, ABC사업단)은 "한국불교전서 한글화 사업의 일환으로 〈월파집 · 해붕집〉, 〈석문상의초〉, 주해본 〈석보상절〉 23, 24권을 번역 · 출간했다"고 5월 21일 밝혔다.

이번에 번역된 〈월파집〉은 청허 휴정의 7대 적손인 월파 태율(月波兌律, 1695~?)의 시문집이다. 스님은 묘향산에서 출가한 후 영호남의 승경과 사찰을 많이 유력(遊歷)하였으며 또 30여 년을 묘향산에서 수행했다. 180여 수의 시와 산문 '향산지' 는 선과 교, 염불을 함께 수행한 당시의 삼문수업(三門修業)의 수행풍토와 서방정토관(西方淨土觀)과 유심정토관(唯心淨土觀)을 동시에 인정했던 당시 불교의 상황을 알게 해준다.



〈해붕집〉은 해붕 전령(海鵬展翎, ?~1826)이 저술한 문집으로, '해붕천유법어' 1편과 조사들에 대한 경찬(敬贊)과 시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여러 조사, 강백들의 인간상과 수행상의 면면을 음미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입문서로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석문상의초〉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교 상례에 관한 최초의 의식집이다.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이 당시까지 정리되지 못한 승가의 상례를 정립하기 위해 1636년에 편찬했고, 제자인 백곡 처능이 1657년에 징광사에서 간행했다. 〈한국불교전서〉(동국대 출판부) 제8책에 한문으로 수록된 〈석문상의초〉, 〈석문가례초〉, 〈승가예의문〉과 제11책의 〈자기문절차조〉을 함께 묶어 번역한 것이다. ABC사업단은 "이 책은 불교 전통의례를 토대로 현재의 의례를 연구하는 데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발간된 〈석보상절〉 주해본 23, 24권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역주 작업의 결과물이다. 〈석보상절〉 세종 29년(1447) 총 24권으로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권 3, 6, 9, 11, 13, 19, 20, 21, 23, 24의 10권만이 남아 전해오고 있다.

23권의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반열반에 드는 모습으로부터 다비, 사리분배까지의 열반상(涅槃相)을 기존의 〈석가보〉의 내용에서 취하고, 본격적인 석가모니 부처님 반열반을 다루는 〈대반열반경후분〉의 내용을 다수 수용했다.

24권은 석가모니 입열반 이후 불경의 결집과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부처님 반열반후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정법안장을 부촉받은 마하가섭을 중심으로 왕사성 칠엽굴에서 제1차 결집을 개최한 내용과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아쇼카왕(아육왕)이 불교에 귀의해 전국에 팔만사천의 탑을 조성하였다는 내용이다.

신성민 기자

학술단신

서유기, '인문학'으로 읽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5월 29일 불교인문학 특강

성태용 前 교수 초청해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서

동양 고전 〈서유기〉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 사업단은 5월 29일 오후 3시 동국대 중앙도서관 전순표 세미나실에서 '삼장법사가 서쪽으로 간 까닭은 - 손오공과 함께 가보는 참사람의 길' 을 주제로 '제16회 불교인문학특강' 을 개최한다.

이날 강연에서 강연자로는 〈어른의 서유기〉 저자인 성태용 前 건국대 철학과 교수가 나선다. 강연에서 성태용 前 교수는 〈서유기〉가 불교를 주축으로 하고 도교를 방계로 해 불교와 도교의 수행 과정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고전임을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 〈서유기〉에서 삼장법사 일행은 여행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여섯 도둑을 만나는데 '안간희' (眼看喜) · '이청노' (耳聽怒) · '비후애' (鼻嗅愛) · '설상사' (舌嘗思) · '신본우' (身本憂) · '의견욕' (意見慾)이다. 이 이름들은 인간이 지닌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의식과 그것들의 작용, 여러 마음에 일어나는 정서를 의미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이번 특강은 기이한 모험담으로 알려진 고전문학인 〈서유기〉가 불교나 도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대중들에게는 종교적 수행 과정을 담은 경전으로,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지난 2016년 9월 불교인문학 강좌를 개설한 이래 15회에 걸친 특강을 개최했다. 일반 학자는 물론, 학생들을 비롯해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불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의 하나로 특강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신성민 기자

원효 〈열반종교〉 번역 출간 학술대회

울산대 원효학硏, 6월 1일 개최

원효학 전문 연구기관으로 원효 전서 해석적 번역 사업을 진행 중인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소장 박태원)가 〈열반종요〉 출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울산대 인문대학 14호관 218호 강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원효와 관련한 자유 주제의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대회의 시작은 박태원 울산대 원효학토대연구소장의 '원효의 서로 열고 서로 껴안을 수 있는 길에 대한 설렘'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알린다.

또한 김성철(금강대)의 '원효의 불성관' , 이혁주(연세대)의 '스피노자와 원효: 자유인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를 중심으로' 가 발표된다.

만해 스님 독립운동 의미 조명한다

선리연구원 6월 4일
선학원서 추모학술회의

만해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재)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부터 (재)선학원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만해홀서 '만해 한용운 75주기 추모 학술회의' 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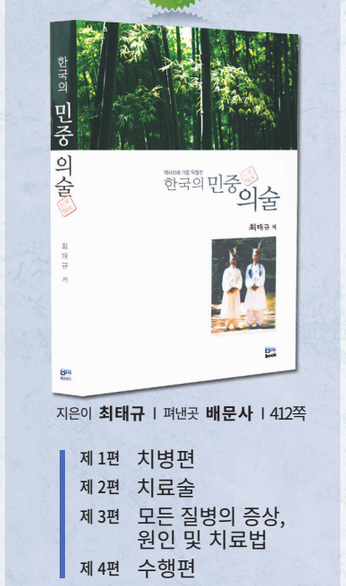
'만해 한용운과 독립운동' 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의 '자유와 평화를 지향한 한용운의 독립운동' △김성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일반연구원의 '한용운의 자유 · 평등사상과 독립운동' △한국불교선리연구원장 법진 스님의 '만해와 선학원-재산환수승소 판결문을 중심으로' 가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최경순(연세대 철학과 박사과정) 씨가 참여한다. 이와함께 선학원은 오는 6월 22일 오후 3시 나루아트센터서 만해 예술제를, 6월 29일 오후 4시에는 AW컨벤션센터에서 만해 추모제를 잇달아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